
아마존 김철기선교사 선교소식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동역자님들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4-5

2016년에 건축을 시작한 십자가형 건물을 10년 만인 2026년 9월 12일에 완공하고
하나님께 헌당하였습니다.

헌당식을 드리면서 지난 10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았습니다.

10년 동안의 건축을 위해 귀한 헌금을 보내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헌당식을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건물을 완공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꿈은 이곳이 인디오 부족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미래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대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큰 과제 앞에서 제 마음에 주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기뻐하라. 나를 의지하라.”

는 말씀이었습니다.

크고 막중한 책임앞에서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최선임을 믿고 주님을
기뻐하며 의지합니다.



01 빠라와리(PARAWARI) 사역



빠라와리에서 머물고 있는 후피다 부족들의 모습

후피다 인디오 부족들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멀리 거주하고 있으며, 가난하고 소외된 부족들입니다. 저희는 2007년부터 이 부족들을 찾아가서 사역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 부족의 젊은이들이 인생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자살률이 아주 높으며,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많아서 저희가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다섯 명의 후피다 부족 청년들이 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 사람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질병 치료 등을 위해 우리 동네를 방문하면, 동네 입구의 강변에서 청색 비닐을 지붕으로 삼아 햇빛과 비를 피하며 지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들을 도울까 기도하다가, 저희 교회가 매주 토요일 이들을 찾아가 음식을 나눠주며 주일에는 교회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려면 멀고 힘들지만, 그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며칠간 머물 때 그들을 돕고 주님을 잘 소개하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빠라와리에서 머물고 있는 후피다 부족들의 모습

02 땀바키 치어를 풀다

저희 호수에 다섯 번째 치어를 풀었습니다. 2011년 최종택·한현순 집사님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호수에 땀바키(Tambaqui) 치어를 풀었습니다.

땀바키는 1년 반이 지나면 약 2kg가량으로 자라는 생선으로 아마존에서 가장 맛있는 민물고기입니다. 약 1년 반 동안 사료를 잘 공급하여 땀바키가 잘 자라서 신학생들의 양식으로 제공되고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03 마따삐 치키에 병원선 사역



가족 사진을 촬영하는 김철기 선교사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마따삐 치키에(Matapi Tique) 인디오 마을에서 병원선 사역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한국 울산 한마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사역이었습시다만, 이곳에 들어오는 항공기가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여 여행을 취소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디오 형제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몇 년째 해 오던 사역이므로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마따삐 치키에 주변 인디오 마을 주민들 약 400명과 함께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마을의 체육 유니폼을 준비하여 가져가고, 축구·배구·풋살 공과 네트, 트로피와 메달, 그리고 400명이 나흘 동안 먹을 음식을 가져가서 함께 나누며 진행하였습니다.

강렬한 적도의 햇빛만큼 남녀 선수들의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체육대회와 함께 의료사역도 진행하였습니다.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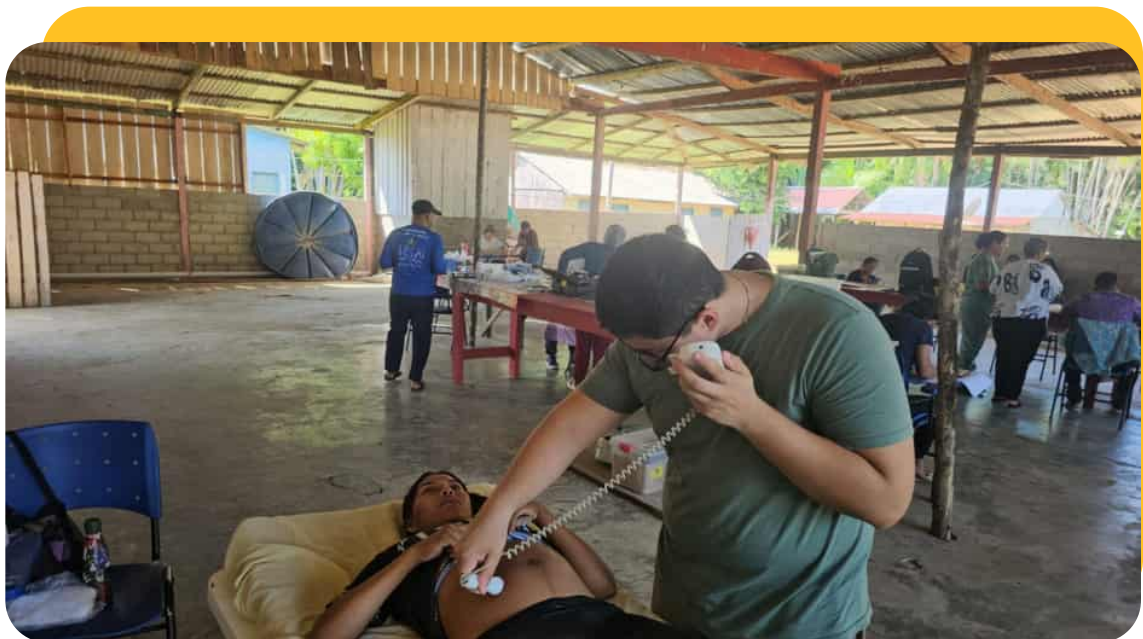


병원선에서 치과 의사의 진료

04 일라스 다스 플로리스(ILHA DAS FLORES) 병원선 사역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일라스 다스 플로리스 지역에서 병원선 사역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인디오 보건소 직원들과 우리 지역 군부대 자원봉사 의사, 지역 보건소 치과의사들과 함께 인디오 마을들을 순회하며 8일 동안 의료사역을 하였습니다. 매일 저녁에는 예수님 영화를 보여주는 사역도 함께하였습니다.



태아의 심장소리를 듣는 의사

05 이한회 장로님의 쌍바울로 귀향



이한회 장로님께서 2015년 77세의 나이로 아마존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아마존에 오실 때 77세이셨지만 항상 비전을 제시하시고, 열심히 농장에 나가서 일하시며, 누구보다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시는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어른이셨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쌍바울로 동양선교교회의 영광이며, 장로님의 가족들에게도 큰 영광입니다.

장로님은 11년 동안 아마존에서 저희와 함께 사역하시다가 2026년 8월 말, 89세의 고령으로 쌍바울로의 가족들에게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장로님을 아마존에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장로님과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수경재배로 성공한 청갯

여러 번 선교 소식에 알려드린 것처럼, 지난 4월 2일 아마존에 오셔서 아마존의 여러 불합리한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성공하셨습니다. 현재 70대 중반이심에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아마존에 오셔서 헌신하여 주신 장로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토퍼 장로님은 6개월 비자가 만료되어 9월 24일 뉴저지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에게 충분한 인력이 없어서 장로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술을 모두 전수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방으로 장로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술 전부를 전수받아 실행할 선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선교사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찾아서 파송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의 지식 모두를 배울 선교사를 찾으면 장로님을 다시 아마존에 모시려고 합니다. 저희의 농업 프로젝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강 크리스토퍼 장로님을 저희에게 소개하여 주신 LA 정현기 목사님과 강 크리스토퍼 장로님의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여 주신 오성환 장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경재배로 자란 야채 아그리어웅(Agriao)

07 2026년 신학교 부흥회



손찬식 목사님 개회 예배 설교 모습

2026년 신학교 부흥회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렸습니다.

인디오 마을 교회 지도자들과 졸업생들, 신학교 재학생 등 200명이 부흥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강사로는 미국 샌디에고에 거주하시는 손찬식 목사님께서 오셔서 야고보서를 강의하여 주셨습니다.

새벽 6시부터 새벽기도회,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오전 강의,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오후 강의,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저녁 집회가 있었습니다.

손찬식 목사님은 25년 전부터 아마존에 오시기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약 20번 아마존을 방문하시고 신학교와 인디오 마을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개척하여 시무하시던 교회에서 은퇴하신 후에는 선교회를 창립하셔서 선교비를 후원하여 주십니다.

손 목사님의 한결같은 헌신과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목사님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매년 목사님을 아마존에 보내주신 사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선교회 회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축복합니다.

부흥회 기간에 쌍빠울로 주호걸 장로님 내외와 미국 YWAM 린데일 지부 이승중 선교사님, 론(Rone) 선교사님께서 아마존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신학교 메인 출입구

2016년 건축을 시작하여 2026년에 완공된 1,600제곱미터의 십자가형 건물 헌당식이 2026년 9월 12일에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시장과 시의원들, 군부대 여단장과 대표들, 인디오 형제들 등 약 300명이 함께 헌당식에 참여하였고 점심을 대접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어느 밤, 잠을 이루지 못한 허운석 선교사가 저희 신학교가 대학교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바람이 사방팔방으로 통하는 건물을 구상하다가 십자가형 건물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해 12월에 달라스에 거주하는 이유숙 자매가 그 그림을 설계도로 그려주었습니다.

2013년 9월 12일 허운석 선교사가 주님께로 돌아간 후, 제가 기본 설계도를 가지고 전문 설계업자를 통해 정밀한 설계도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잔디밭에 나무 막대기들을 꽂아 놓고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2014년 7월 서울 신촌교회 조동천 목사님과 단기팀이 아마존에 오셔서 그 설계도와 잔디밭에 세워 놓은 건물 표시들을 보시고 익명의 후원자님을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2016년 첫 헌금을 보내주셔서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당시 신촌교회 선교부 부장이셨던 최재형 장로님의 주선으로 신촌교회에서도 창립 50주년 감사헌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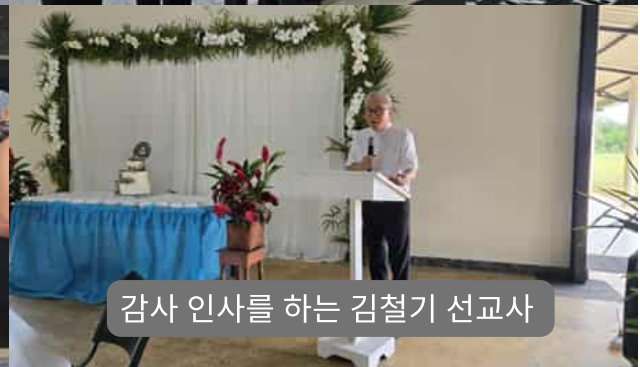
헌당식에서 찬양하는 신학교 성가대



건물 헌당식 테이프 자르는 모습



십자가 형 건물 이름을 여는 모습



감사 인사를 하는 김철기 선교사

건축비가 없어서 건축이 중단된 것을 아시고 뉴저지의 이정현 집사님과 박보영 목사님(인천 방 주교회 원로목사)께서 도움을 주셔서 건축을 재개하였습니다.

마지막 내부공사 중 중요한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비용을 서울 신촌장로교회 안병원 장로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더불어 서울 신촌교회 이승무 장로님, 대구에 거주하는 지정훈 집사님과 여러 익명의 후원자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건물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건물을 완공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는 신학교가 시작된 1997년부터 이 신학교가 대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건물을 통해 대학이 설립되어 인디오 부족 청년들이 공부하고 하나님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희 헌당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헌당식을 축복하여 주시고, 페이스북 라이브로 참여하시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 건축을 도와주신 여러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와 주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되시기를 간곡히 중보합니다.

09

13주년 허운석 선교사 기념예배

허운석 선교사가 주님께로 돌아간 지 13주년이 되어 부흥회가 끝난 후 조촐하게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13주년 허운석 선교사 기념예배

10

브라질 선교교회의 헌신

쌍빠울로 근교의 정찬성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브라질 선교교회에서 헌옷을 많이 수집하여 보내주셔서 부흥회에 참석한 형제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었습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 모든 집회에 지각이나 결석 한 번 없이 개근한 형제에게는 세 자루의 헌옷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정성껏 좋은 옷들을 보내주신 정찬성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상자들을 포장하고 이삿짐센터에 배달하여 준 쌍빠울로의 줄리오 형제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더미 같이 쌓인 의류 선물들



집회기간 개근상을 받은 인디오 형제

■ 기도하여 주십시오

1 부흥을 위하여

2009년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 신학교에 찾아오셔서 큰 회개운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희의 간곡한 소원은 주님께서 다시 한번 더 크고 강력한 회개운동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2. 강 크리스토퍼 장로님의 농업 프로젝트들을 위하여

강 크리스토퍼 장로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지식을 저희가 잘 전수받아 자립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3. 병원선 사역을 위하여

병원선 사역을 책임질 의료선교사를 파송하여 주시고, 병원선 사역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공급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4. 김철기 선교사의 건강을 위하여

매일 새벽기도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소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5. 신학교가 대학으로 변경되기 위하여

신학교가 대학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브라질 문교부가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필요한 도서와 교수진, 물적 자원이 공급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2026년 9월 9일
김철기 선교사 드림